

# 마음을 움직이는 세팍타크로

경상남도/세팍타크로  
하태준(동명중학교)

운동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나는 어느 중학교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남학생 중 한 명이였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체육 선생님은 나와 내 친구들에게 ‘세팍타크로’라는 스포츠를 알려주셨다. 이름만 들어도 기존의 내가 알고 있던 스포츠와는 다를 것 같았던 세팍타크로는 발만 사용하여 전용 공을 상대 팀의 구역으로 공을 넘겨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 내가 알던 족구와 꽤 비슷하였다. 운동을 좋아하는 나로선 새로운 스포츠를 배운다는 생각에 너무나 신이나 있었다. 그래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의 한번 배워볼래? 라는 제안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나와 내 친구들과 선생님은 하루하루를 세팍타크로와 함께 성장하는 나날을 보내왔다. 세팍타크로는 나에게 새로운 스포츠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다. 기존의 알던 공과는 달리 얇은 플라스틱이 겹겹이 겹친 듯한 공은 나를 늘 흥미롭게 하였으며 공을 차기 위해서 역동적인 동작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내 몸을 다른 사람 몸처럼 불 사지르며 연습하였다. 이렇게 연습하던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청소년스포츠 한마당 세팍타크로 대회에 참가해보자고 하셨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라고 나와 내 친구들은 주저할 거 없이 참가해보겠다 하였고 대회 참가 전날까지 우리는 틈만 나면 세팍타크로 연습하였다.

대회 당일, 우리는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부상 방지를 위한 단체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문화행사의 종목인 목표물 맞추기, 세팍타크로 컬링의 시범을 보았다. 이렇게 단순히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심을 불태우기 위한 대회보다 이 경기장에 온 모두가 다 같이 즐기고 긴장도 풀 수 있는 행사를 하여서 나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범이 끝나고 바로 목표물 맞추기 문화행사가 시작되었다. 목표물 맞추기 종목은 한쪽 네트에 점수가 여러 개 쓰여 있는 판을 깔아 놓은 후 반대편에서 세팍타크로 공을 손으로 던져 맞추어 합산하였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진 팀이 이기는 규칙이었다.

우리 팀과 처음으로 대결할 팀은 고등학교의 <부춘 국밥> 팀이었다. 고등학생과 겨루는 거라서 우리가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지만, 승부는 겨루어 보아야 알기 때문에 경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버리느라고 힘들었다. 선공은 우리 팀이 가 먼저 시작했다. 경기 초에는 국밥 팀한테 지지 않나 싶더니 결국 져버렸다. 국밥 팀에게 패배 후 <우가>팀과 <크롱>팀과도 행사 경기를 한 후에 진짜 시합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첫 상대는 <크롱>팀이었다. 같은 또래 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멋진 친구들이었다. 우리 팀은 결국 <크롱>팀에게 졌다. 경기를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세팍타크로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제대로 안 것 같아서 뜻 깊은 경기였다. 그렇게 첫 경기를 잘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고 쉴 틈도 없이 바로 고등학교 팀인 <부촌 국밥>팀과 경기를 치렀다. 앞의 행사 경기에서 이 팀과 겨루었을 때 졌다는 패배감이 아직 남아 있어서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주눅 들어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하여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 시작도 전에 질 줄 알았던 경기였는데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이 어렵듯이 들었다. 당연히 <부촌 국밥>팀이 이길 줄 알았던 다른 팀들도 우리 팀의 결과에 놀란 눈치였다. 이후 바로 마지막 시합이 이뤄졌다. 상대는 다름 아닌 부촌 국밥 팀과 경기를 치렀을 때 응원을 해주던 팀이었다. 심지어 응원을 해주던 팀원들 전부 실력 있는 친구들이었기에 이번 경기는 조금 힘들겠구나 싶었지만 서로 치열하게 경기를 하여서 마지막에 점수를 득점한 우리 팀이 승리하였다. 그렇게 마지막 경기에서 이긴 후 다른 팀과 점수를 비교하였는데 우리 팀도 2승 1패를 하였고 <우가>팀도 2승 1패를 하여서 선생님께 여쭙보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점수 차이로 이겼는지 승부를 가린다고 하셨다. 우리 팀이 승리한 2경기 모두 다른 팀과 득실차가 많이 나지 않아서 아쉽게도 2등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2번째 문화행사인 세팍타크로 컬링을 하였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컬링이지만 발로 세팍타크로 공을 차든 굴리든 점수판 안에 공을 넣어 점수를 내 합산하였을 때 가장 많은 팀이 이기는 행사였다. 앞에서 좋은 점수를 내었던 우리 팀은 흥기분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시상식에서 상품과 상장 증정식 후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앉아 많은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거로 생각했던 우리 팀이 모두가 노력하여서 이런 결과를 낸 사실이 매우 기쁘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세팍타크로 선수로 나아갈지 나아가지 못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에 세팍타크로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운동을 통해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께 매우 감사드린다.